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2호

스포츠칼럼

대선후보 체육정책, 대권을 위한 수단인가 목적인가

김학수 스포츠 칼럼니스트·스포츠학 박사

‘즐기는 스포츠’의 희열과 공허함 사이

정윤수 스포츠평론가·성공회대 교수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故 최속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들 엄벌...체육계 만연한 폭력 근절될까

서민지 영남일보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KPGA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 파업 101일,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협회장

김진희 스포츠조선 기자

스포츠성평등

“남자 스포츠 경기를 여자가 중계하는 걸 본적 있나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스포츠 속으로]

대선후보 체육정책, 대권을 위한 수단인가 목적인가



2021.11.11

김학수
스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학 박사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확정된 데 이어 지난 5일 야당 국민의 힘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명되면서 대선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두 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다양한 정책 대결을 벌이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으로 각각 다른 이력을 살아온 두 후보인 만큼 각종 정책 공약도 상반되는 것이 많다. 공공과 민간, 공영과 기업, 평등과 자유, 복지와 성장 등에서 가치 충돌을 보이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체육정책에서만은 큰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다. 체육정책만 놓고 보면 어느 후보의 공약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이재명 후보는 체육전문가를 통해 체육 정책 자문을 받아 자신이 지향하는 체육정책의 일면을 보여줬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성남시민이나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내걸며 함께 하는 ‘대동세상’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건강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체육활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검사로만 활동해와 체육행정 등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사라예보 탁구 영웅’ 이에리사 국민캠프 건강스포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체육언론인과 체육학자 등의 자문을 통해 “공정한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 스포츠 복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운동과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체육을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삼겠다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도 이 같은 공약은 비슷하게 나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체육이 국민통합에 중요하다는 높은 안목과 식견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체육이 복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동안 체육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로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은 역대 대선에서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는 체육이 다른 정책에 밀려 외곽으로 밀려났으며 남북대화나 국정 농단을 위한 장식물로 이용했던 것이다. 체육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이념, 지역, 계층 간 갈등이 심한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꾸어주는 체육 활동을 일상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육은 지구촌의 ‘용광로’라는 말이 있다. 국가, 민족, 종교, 이념의 차이를 딛고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체육, 스포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체육을 대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나 걸가지로 삼아서 안 된다. 국민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체육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즐기는 스포츠’의 희열과 공허함 사이

장안의 화제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를 빼놓지 않고 다 봤다. 강렬한 캐릭터와 높은 수준을 탑재한 댄서들의 에너지가 화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분야와 장르를 불문하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토록 모두가 ‘즐기는’ 모습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스우파>의 즐거움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블루’의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생각해 보면,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량을 1000% 펼치고 나서 경쟁했던 상대방과 뜨거운 포옹을 하는 장면이란, 우리의 생애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강렬한 감정이다. 그것도 거의 모든 육친적 관계가 끊어진 코로나 상태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그래서 우선 그들이 즐거웠고 보는 사람도 즐거웠다.

“경기를 즐겨라.”

우리 스포츠 역사에서 이 말의 의미를 촉발시킨 계기는 2002 한·일 월드컵이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 히딩크 감독은 차두리를 투입하면서 “경기를 즐겨라”라고 말했다. 실은, 당시 1년여 동안 전개된 월드컵 대표팀의 훈련과 경기 전체를 다섯 권 분량으로 기록한 최진한 코치의 비망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또 거의 모든 경기들에서 히딩크 감독은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한다.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도 히딩크 감독은 “가서, 즐겨라”라고 말했다.

그 후 많은 감독들이 이 말을 사용했고 어느덧 넓게 퍼지려는가 싶었는데, 한편 논쟁이 되기도 했다. 즐기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승부가 걸렸는데 말이 되는가.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빨 보이고 히히덕거리다니”라고 깎아내린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들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대표로 선발되고 메달을 따는 것은 숭고한 것이며, 그에 도달하려면 혹독한 과정을 견뎌야 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거나 ‘고진감래’ 같은 말들이 스포츠의 윤리 규범이었다. 그것은 규율이 되었고 통제와 훈육의 동기가 되었다. 수십년 지속되어 지금도 한국 스포츠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관습에서 ‘즐거라’라는 말은, 튕겨나오는 공이 되곤 했다.

그럼에도 ‘즐거라’라는 선언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선 즐긴다는 것이 일각의 비난처럼 히히덕거리면서 대충 하자는 게 아니다. 놀이터의 아이들도 그러지 않고 조기축구회에서도 그러지 않는다. 승패가 걸린 이상 가위바위보를 해도 영혼을 끌어모으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즐기는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 말은, 감각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스우파>의 댄서들이 증명하였듯이, 해당 종목의 규칙과 미학과 목표를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해 가는 여정이 기본이다. 이 여정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가치와 미학이 바탕이 된다. 그래야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고 몰두하게 된다. 이른바 ‘몰입의 즐거움’은 이런 전제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스포츠계가 학생 선수들에게 ‘몰입의 즐거움’이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한 훈련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환경은 안전한가, 이 점 또한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 맥락 없는 행위는 없다. ‘즐기는 스포츠’가 ‘이빨 보이면서 설렁설렁’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도의 수련으로 드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식의 막연한 상태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즐기는 스포츠’는, 발전주의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키고 여러 사회적 약속이 부도나고 그리하여 경쟁의 사다리만이 눈앞에 놓여 있는, 당장의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이다. 학생 선수들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각종 공포와 위압적 상황의 극복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하여 동기유발이 이뤄지고 그것을 너끈히 수행했을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 특기자가 되고 프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유일무이한 사다리, 그 경쟁에서 패하거나 낙오하면 곧장 추락하고 마는 극심한 불안의 상황은, 위험하다. 단순히 힘들고 고된 정도가 아니라 훈련이 두렵고 생활이 불안한 상태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미비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악으로 깡으로 하는 ‘승부근성’도 필요악이고 높은 수준에 이르러 희열을 느끼는 식의 ‘즐기는 스포츠’도 공허한 수사일 뿐이다.

故 최속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가해자들 엄벌... 체육계 만연한 폭력 근절될까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최속현 선수(당시 22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주장·팀닥터 모두 실형

지난 11일 대법원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전 감독과 주장 장운정(여·32) 전 선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감독은 징역 7년, 장 전 선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최 선수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의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팀 다른 선수에게 고 최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고 최 선수에게 공황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고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전 감독은) 선수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 선수들은 자긍심을 잃고 운동하는 데도 회의감을 느꼈다. (장 전 선수는) 영향력을 이용해 상습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운동을 계속하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고 최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도환 선수는 대구고법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이른바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는 대구고법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 6월 및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안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했다.

그는 선수들을 상대로 수기치료, 물리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선수 21명으로부터 7년간 356회에 걸쳐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여자 선수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으며, 최 선수가 아침에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로 최 선수와 다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장 계속

◆허위 계획서로 보조금 타낸 김규봉, 국회 증언 불출석 안주현 '집유'

고 최 선수 사건으로 파생된 재판들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1월, 실제로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 인원은 7명임에도 9명이 참가하는 것처럼 경비를 산출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2019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8천500만원여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前)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전 경주시 공무원 등 관계자 5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주시체육회를 '기망'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기 혐의와 함께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았던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된 안주현씨는 지난 6월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해 7월 22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동행 명령장'을 수령하고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씨와 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22세에 세상 등진 최숙현...선수 인권보호 강화조치 생겨나

고 최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6월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당시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고인이 숨지기 앞서 4개월 동안 고인이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느 한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 선수 사망 후, 운동계 만연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 국회 등은 대책을 마련했다. 일각에선 '사후약방문'식 사태 수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을 제정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숙현법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인지 시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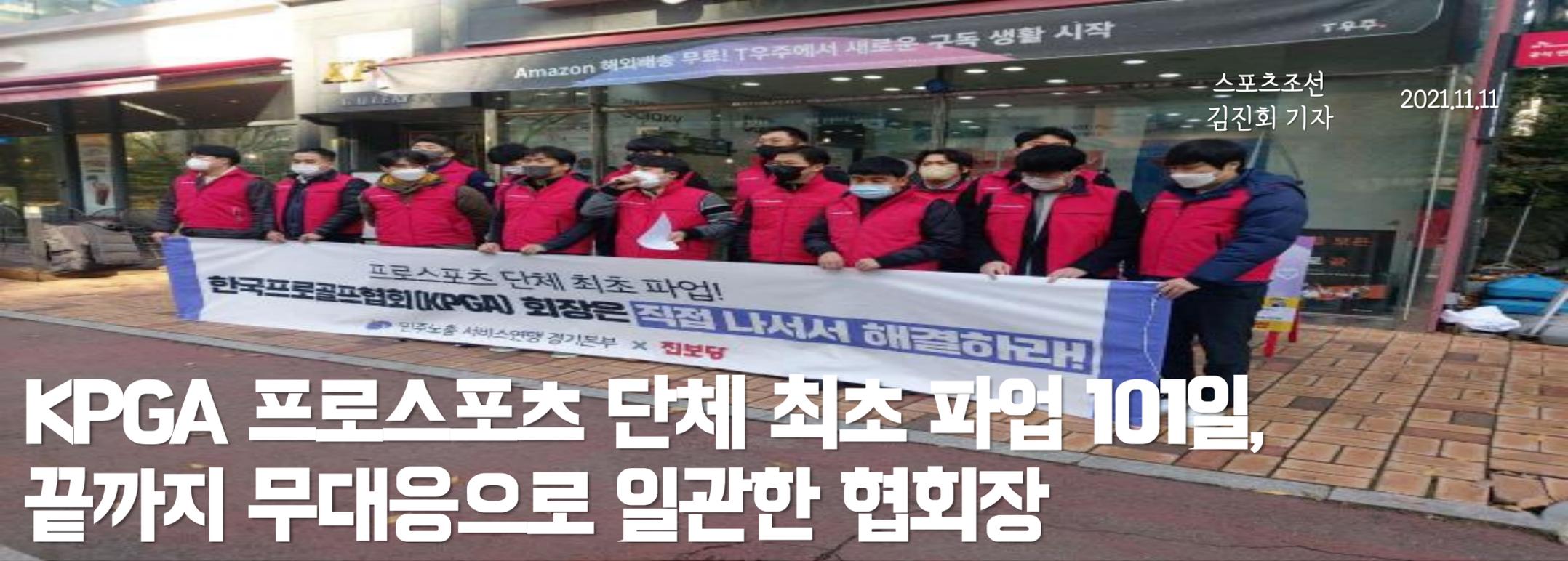
지난 3월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제명'처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351명(0.63%)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신체폭력은 지난해(47.9%)에 비해 올해(30.3%) 감소했지만, 오히려 언어폭력 비중은 지난해 42.7%에서 올해 51.7%로 증가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 및 신체폭력 감소 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 선수에 대해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이달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폭력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인은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안주현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고 최 선수의 아버지는 "딸이 세상을 등지며 '운동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 딸이 마지막 문자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사회적 관심 덕분에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KPGA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 파업 101일,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협회장

KPGA지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파업에 돌입해 101일간의 투쟁을 이어왔다. KPGA지회는 11월 11일자로 파업을 임시적으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는 파업의 전면 철회는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잠정적인 파업 중단이다.

지난 4월 KPGA에선 '직장 내 동성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언론 보도돼 큰 논란이 일어났다. 경영진은 KPGA지회의 조합원이자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인 A직원에게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발령 2개월에 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KPGA 경영진은 이렇게 보복인사 뿐만 아니라 협박 및 책임전가, 주말 근무 시 대체휴가 삭제, 주52시간 제도 편법 운영, 협의 중이던 단체협약안의 번복 등으로 직원들을 압박했다.

경영진은 결국 보복인사 조치한 A직원과 다른 B직원에게 '협박 및 책임전가'를 행하다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고 개선 조치를 권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전면 부정하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결국 KPGA 내 부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질타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잠정복귀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파업 종료'가 아니라는 것이 KPGA지회의 설명. KPGA지회는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임시적 복귀일 뿐이라고 밝혔다. 추후 협회 정상화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KPGA지회는 곧바로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GA지회의 요구는 'KPGA를 정상화 시키는 것' 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징계 철회와 주 52시간제 운영 정상화, 노사 단체교섭의 잠정합의 사항 회복 등이 선결돼야 한다.

KPGA의 상식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조합원들은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파업의 길을 선택했다.

KPGA지회는 각종 사태 해결을 위해 협회장에게 직접 해결을 수차례 촉구하였지만 협회장과 경영진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남자 스포츠 경기를 여자가 중계하는 걸 본 적 있나요?”

공영미디어로서 KBS가 스포츠 영역에서도 고착화한 미디어의 성차별적 재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6일 가을정기학술대회에서 KBS 특별세션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를 주제로 관련 연구를 공유했다.

올해 ‘2020 도쿄올림픽’(코로나19로 1년 연기)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성평등 가치가 보편화한 시대적 흐름을 보여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성평등한 올림픽’ 기치 아래 사상 처음 출전 선수 중 여성이 절반 가까이(48.5%)를 차지했고, 지난 올림픽 대비 혼성경기가 2배가량 늘었다. 신체 노출이 많은 유니폼 대신 다양한 복장으로 출전한 체조, 배드민턴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국내외 언론의 올림픽 키워드로도 자연스레 ‘성평등’이 꼽힌 가운데, KBS ‘다큐인사이트-국가대표’ 반향은 상당했다. 배구 김연경, 골프 박세리, 축구 지소연, 펜싱 남현희, 핸드볼 김은아, 수영 정유인 등 여성 국가대표 6인이 ‘여성 스포츠인’이기에 마주했던 한계와 극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국가대표는 방영 당일 지상파 동시간대 시청률 1위(닐슨코리아)를 차지했고, 시청자 게시판 등엔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정사강 박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는 “‘여성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 가운데 올림픽이나 다큐인사이트를 본 여성들 반응이 뜨거웠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충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성별화된 상태로 지속되어온” 미디어의 스포츠 재현을 살펴봤다.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2030여성 시청자들의 이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초 연구를 통해서다.

정 박사는 “(교육과정은) 남학생 중심 체육수업이 여성을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스포츠계에서도 남성성에 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여성선수는 전시 관점에서 인식한다”며 “미디어는 성별화된 스포츠에 대해 성차별적 인식을 갖게 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 박사와 인터뷰한 20~30대 여성들은 미디어를 통해 여성 스포츠인을 접한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A씨는 “가족들과 UFC를 보면 한 번도 여자는 안 나왔다. 지상파 채널에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해서 보면 당연히 남자 경기였고, 여자 경기를 본다는 ‘옵션’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며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 여자 피겨스케이팅이나 리듬체조 선수 등이 외모로 조명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스포츠 전문인으로서 접했던 기억은 많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B씨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팀 스포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공영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만 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도 ‘아마추어판’은 무시됐던 것 같다”며 “최근엔 트렌드가 되어서 여성 스포츠를 (방송사 카메라가) 찍어주는 것 같지만 진짜로 여성들이 스포츠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동기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다음 장 계속



정 박사는 또한 “(개인) 스포츠 유튜브 채널들도 여성에 대한 차별, 자원 부재, 미디어의 부정적 재현을 다루지만 이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말하기 어렵고 댓글이 신경쓰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KBS는 공영방송이기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KBS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안했다.

당장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비부터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올림픽 당시 KBS N스포츠의 미국·브라질 여자배구 결승전이 오효주 아나운서와 이숙자 해설위원 콤비로 화제를 모은 사례는, 여성 선수 경기를 여성들이 해설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인 현실을 반증했다.

정 박사는 “여자 경기를 남자가 중계하는 건 봤어도 남자 경기를 여자가 중계하는 건 못 본 것 같다”(B씨)거나 “일단 여자가 나와 운동을 하는 게 많아져야 한다.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C씨)는 의견 등을 전했다.

한편 콘텐츠를 통한 성평등 구현의 기반으로 KBS 내부의 성평등도 주된 과제로 거론됐다.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는 ‘공영방송사의 조직문화와 젠더 이슈’를 주제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 수신료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위해 다각적 점검과 역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성평등 문화”라 강조했다.

KBS성평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KBS 임직원 4550명 중 여성은 1105명이다. 직급별 여성 비율은 팀장급 이상 15.3%, 부서장급 이상 8.7% 수준이다. 서영주 KBS성평등센터 센터장은 “KBS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여성직위자 임용목표를 추진해 올해는 (여성직위자 비율이) 17%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12기 KBS 이사회 11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쳤다는 한계도 있다”고 했다.

서영주 센터장은 “2020년도 시청자상담실에 접수된 의견 중 젠더 이슈 관련은 1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이다. 높아진 시청자들의 성인지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확인했다”며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성인지교육프로그램, 중점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가을 야구와 함께 찾아온 스포츠 영웅들의 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83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스포츠 영상] 피겨 유영, 그랑프리 연속 동메달...김연아 이후 처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4454_34936.html

국내 최초 파크골프 생활스포츠지도자 1급 김대현 씨 "안전하고 올바른 문화 확산위해 노력..."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11410430544429>

병무청, 유튜버·e스포츠선수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33900504?input=1195m>

규정·절차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나선 핸드볼협회 "인터넷 기사 통해 징계 알려지니 당황하지 마라" [엠스플 이슈]

https://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763567.000#07D0

스포츠영웅 조사...김수녕·故김홍빈·박항서·故유상철 후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0_0001646562&cID=10501&pID=10500

수상스포츠 메카 단양서 카누국가대표팀 강도 높은 훈련 돌입

<https://www.news1.kr/articles/?4492477>

진주 체육 인프라 확충... '신안동 복합스포츠 타운' 첫삽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063300052?input=1195m>

부울경 메가 스포츠 한마당 성료...내년엔 경남서 개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66171&code=61161111&cp=nv>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